



강남 최대규모 단지... '도심에서 즐기는 자연' 누리보세요



구룡역 5번 출구서 도보 5분 거리
주변 버스정류장 8개로 교통편리

지하 4층~지상 35층, 6702세대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시공

단지 내 대형수목으로 숲 조성
중앙광장 강조로 휴식 특화공간
리조트형 테마정원, 아트요소 결합
단지 내 초·중학교, 대치동도 근접



- ① 단지 내 전경
- ② 야외 커뮤니티 시설
- ③ ④ ⑤ 놀이터
- ⑥ 클라이밍을 할 수 있는 공간



아파트의 미학(美學)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작년 12월부터 시작해 이제 입주가 마무리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지하철 수인분당선 구룡역 5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 거리다.

단지 자체가 웬만한 마을 2개 규모다 보니 구룡역 방향인 114동, 115동 등 거주 동에 따라 교통여건은 다소 달라지지만 단지를 둘러싼 버스 정류장만 8개일 정도로 불편이 없다. 양재IC를 이용하거나 3호선을 주로 타는 주민들은 구룡마을쪽 동을 선호하기도 했다.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는 서울 강남구 개포공공 1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다. 지하 4층~지상 35층, 74개동, 총 6702세대에 달한다. 강남 단 일단지로는 최대 규모다.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는 첫 번째, 우선을 뜻하는 '퍼스트(First)'와 단계를 의미하는 '티어(Tier)'의 합성어다. '강남 최고 등급'의 주거 공간이란 의미로 지었다. 학군과 교통, 환경 모두 빠질 게 없다.

전체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1회지와 2회지로 나누어 1회지는 HDC현대산업개발, 2회지는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전용면적은 소형(34㎡)부터 펜트하우스(179㎡)까지 아파트에서 가능한 모든 타입이 다 있다. 이 가운데 ▲34㎡ 237세대 ▲49㎡ 324세대 ▲59㎡ 549세대 ▲112㎡ 59세대 ▲132㎡ 66세대 등 총 1235세대가 일반분양됐다.

단지내 도로를 따라 들어가면 대형 주차(게이트 1, 2)이 웅장하게 자리잡고 있다. 디에이치아이파크

크(THE HPARK) 로고가 고급스럽게 부각돼 있으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 전체를 지하화해 지상공원은 차가 다니지 않는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남향 위주의 단지배치로 주거쾌적성을 높였다. 유리난간 일체형의 조망형 이중창이 적용돼 발코니를 확장해도 내부에서는 시야 간섭이 없고, 외관 역시 깔끔하다.

조경 컨셉트는 도심에서 즐기는 자연(Nature in Urban)이다. 숲과 물, 정원, 산책길, 놀이터와 체험공간까지 멀리 나가지 않고 단지 내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대형 수목으로 숲을 조성했으며, 중앙광장을 강조해 주민들이 여유롭게 쉴 수 있는 특화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리조트형 테마정원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물이 흐를 수경공간은 물론 색다른 조형물로 아트 요소도 결합했다.

단지를 둘러싼 자연환경도 좋다. 양재천을 비롯해 개포근린공원, 구룡산, 대모산, 단천 등이 단지에 인접해 있어 자연을 가까이서 누릴 수 있다.

단지 곳곳에는 커뮤니티 시설이 위치해있다. 각 구획마다 피트니스 센터와 사우나, 키즈센터, 가든카페가 있다. 1회지에는 실내 체육관과 볼링장, 골프연습장, 도서관이 있으며, 구름다리를 건너서는 실내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다.

아외에는 여름철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보호자는 이를 지켜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단지 안에 개원초등학교와 개포중학교가 자리해 소위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이자 '중품아'다. 주변에는 구룡중, 대치중, 대청중, 개포고 등 명문학군이 형성되어 있으며, 대치동 학원가도 버스로 10~15분이면 갈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